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김남길**



▲ 배우 김남길이가 11일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SBS

“정반대 성격 프로파일러, 애 먹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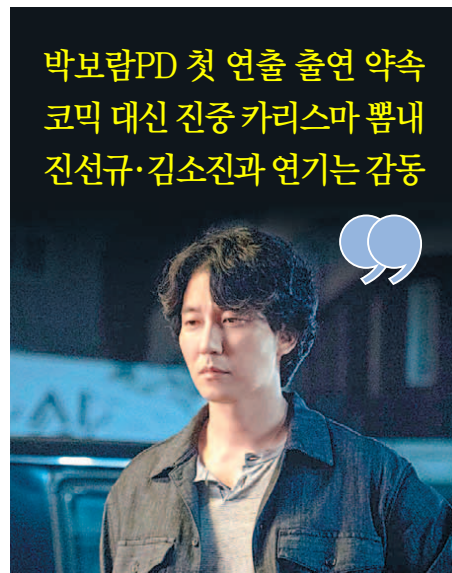
“킹'(King)남길의 귀환.” 배우 김남길(41)이 다시 한번 '시청률 지붕'에 도전한다. 새 무대는 14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다. 2019년 자그마치 22%(닐슨코리아)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리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열혈사제'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주연 드라마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이미 시청률 흥행에 대한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부담감을 느낄 법도 하지만 11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나선 그의 표정에서는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이전에 해보지 않은 각종 도전이 즐거웠다”면서 설렘 가득한 각오도 내비친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역을 통해 “코믹한 매력 대신 진중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다.

●“3년 전 약속이 출연까지”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한 경찰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드라마에서 김남길은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범죄행동분석관 송하영을 연기한다. “온몸을 쓰는 액션”을 주로 연기한 이전과는 180도 다른 캐릭터다.

“눈빛으로만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야 해요. 도전의식이 생기더군요. ‘열혈사제’ B팀 감독이었던 박보람 PD가 연출한 첫 드라마라서 용기를 냈어요. 당시 박 PD에게 ‘아무리 바빠도 첫 작품은 꼭 도와주겠다’고 말했거든요. 약속했으니

군말 없이 출연할 수밖에요. 하하하!” 주연 호흡을 맞추는 진선규, 김소진은 “새로운 자극제”다. 각각 영화 ‘극한직업’과 ‘모가디슈’로 존재감을 드러낸 이들은 극중 범죄행동분석팀장과 기동수사대 팀장 역을 맡는다. “스크린을 ‘씹어 먹는’ 진선규, 김소진 씨와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었어요. 역시 감동이더라고요.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고 자주 얘기해요. 드라마는 비록 무겁고 진중한 이야기이지만 현장에서는 되도록 재미있고 밝은 분위기로 촬영하고 있어요.”

●“실제의 나와도 정반대”
그는 “캐릭터와 공통점을 찾기까지 애를 먹었다”고 고백했다. 프로파일러는 살인마의 마음을 빠르게 읽어내야 하는데 자신은 “공감능력이 다소 떨어진 다”며 웃었다. “매 장면이 제게는 도전이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폭풍이 치지만,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절대 티내서는 안 돼요. 실제 성격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최대한 읽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캐릭터의 모티프가 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웅 동국대 겸임교수를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드라마는 권교수가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다.



“권 교수님께 당시의 고충, 시대상 등 근본적인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살인마에 대한 기억을 상기는 게 힘들 텐데도 현장에 자주 나와서 도움을 주셨죠. 덕분에 더욱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유머러스한 권 교수님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저와 100% 비슷하다고 자부합니다.” 드라마의 목표는 따로 있다. 시청자들에게 “성악설과 성선설, 무엇이 맞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범죄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죠.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간의 배려와 이해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스포츠스타 2세들의 운동 DNA는? “피는 못속여”

방송가에 스포츠스타의 '가족'들이 뿔뿔이 났다. '킬러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히는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이 최근 변화를 맞고 있다. 연예인들이 축구·농구·배드민턴 등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는 과정을 주로 그렸다면, 최근 스포츠스타와 가족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0일 첫 방송한 채널A '피는 못속여'가 대표적이다. 전직 축구선수 이동국, 야구선수 김병현, 테니스선수 이형택 등 각분야 스포츠스타들이 '운동 DNA'를 타고난 자녀들과 함께 출연한다. 아빠 못지않은 승부욕을 불태우는 딸들, 때로는 엄하지만 아이들의 뒤에서 마음 아파하는 아빠의 모습이 한편의 시트콤처럼 펼쳐진다.

●새로운 '스타' 탄생 예감
첫 방송 이후 테니스 선수를 꿈꾸는 이동국의 16세 딸 재아, 태권도와 수영, 리듬체조 등을 섭렵한 김병현의 12세 딸 민주, 테니스·축구 등을 다채롭게 훈련하는 이형택의 12세 딸 미나는 단박에 화제인물로 떠올랐다. 진행자 강호동도 아들 시후 군



10일 첫 방송한 채널A 새 예능프로그램 '피는 못속여'는 스포츠스타와 자녀들의 일상을 내세워 시청자의 호기심을 잡아끌고 있다. 사진제공 | 채널A

의 골프 이야기를 공개해 관심을 끌어올렸다. 덕분에 프로그램은 2.1%(닐슨코리아) 시청률로 출발했다. 시청자들은 스포츠스타들의 각기 다른 교육법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강호동도 “출연자 부모의 육아 철학과 교육 방법이 궁금해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연출을 총괄하는 서혜승 책임프로듀서(CP)는 11일 “자녀들에게 운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 노하우를 담아 정보와 재미 모두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로는

공감의 폭을 한껏 넓혔다. 서 CP는 “자녀 출연자들은 부모를 넘어서기 위해 남들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한다”면서 “치열한 아이들의 일상이 공감과 감동을 자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팬싱스타 남현희와 같은 팬싱을 선택한 딸 하이, 사격선수로 활약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찬민의 딸 민하를 통해 다양한 운동 종목을 시청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스포츠스타 향한 '호감'이 발발
19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KBS 2TV

'우리끼리 작전:타임'(작전타임)이 스포츠스타 가족예능 소재의 바통을 잇는다. 골프 스타 박세리와 방송인 김성주가 진행하는 '작전타임'은 체조의 여흥철·여서정 부녀, 야구의 이종범·이정후 부자, 탁구의 유남규·유예린 부녀 등이 일상을 공개한다. 연출자 박은희 PD는 “집념의 집약체인 스포츠 세계에서 살아남은 스포츠스타들에 대한 시청자의 호기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가진 대중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탁구·컬링도 온다!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

'올탁구나' 연예계 탁구 고수 몽체 '같이 갈래?' 스포츠직관 열기 UP '컬링 퀸즈' 여성스타들 컬링 승부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의 전성시대다. 최근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 긴박한 경기 장면 연출을 위해 편집을 조작해 파문이 일었지만, 여전히 스포츠 예능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크자 각 방송사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탁구', '직관문화', '컬링' 등 소재도 콘셉트도 다양하다.

연예계 절친인 강호동과 은지원은 '탁구'로 몽체 시청자들을 찾는다. 이들은 이달 중 tvN에서 방송하는 새 예능프로그램 '올탁구나'에서 연예계 탁구팀을 나선다. '올탁구나'는 연예계 숨은 탁구 고수들이 특훈과 도전을 통해 연예계 최강 탁구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는다. 탁구에 진심인 스타들이 혹독한 트레이닝과 라이벌 매치 등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릴 예정이다. 강호동과 은지원은 연예계 탁구 고수로 꼽힌다. 강호동은 각종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실력을 증명했고, 은지원도 탁구에 '전

애정'을 갖고 있다. 연예계 탁구팀을 이끌 감독은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에서 3일부터 공개한 스포츠 예능 '같이 갈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해진 스포츠 직관문화의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KBS N이 기획·제작했다. 개그맨 허경환과 이혜성 아나운서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경기장을 방문해 치어리더, 구단 리포터, 해설위원 등을 만나 직관의 숨은 재미를 느껴보는 과정을 담는다. 또 각 구장의 인근에서 선수들과 팬들

이 자주 찾는 맛집 등도 소개한다. MBC는 설 연휴를 맞아 파일럿으로 '컬링'을 다룬다.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국민이 열광했던 비인기 종목 컬링을 다시 한번 관심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설 연휴 중 2회에 걸쳐 방송하는 '컬링 퀸즈'는 배우, 아나운서, 프로 골퍼, 코미디언 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여성 스타들이 국대팀, 단서팀, 골프팀, 아나운서팀 등으로 몽체 컬링 대결을 펼친다. 송은이와 신봉선이 진행을 맡고, 남자 컬링 국가대표 전채의 선수가 해설에 나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윤종신, 가상인간 김래아 프로듀서로 나선다



가수 윤종신이 가수로 데뷔하는 가상 인간 '김래아'(Reah Keem)의 프로듀서로 나선다. 윤종신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11일 "LG전자가 선보인 김래아 데뷔를 준비하는 프로젝트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래아의 노래와 목소리까지 직접 프로듀싱한다. 래아는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가상 인플루언서다. 지난해 'LG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연설자로 처음 대중 앞에 섰다.



워너원 전 멤버 다시 뭉쳤다...3년만에 신곡

프로젝트그룹 워너원이 3년 만에 신곡을 발매한다. 11일 소속사 스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1명 멤버 전원이 참여한 '뷰티풀 파트 3'(Beautiful Part 3)을 27일 공개한다. 노래는 지난달 11일 '2021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에서 처음 선보였다. 무대에는 불참한 중국 멤버 라이관린도 현지에서 녹음을 마쳐 목소리를 더했다. 2017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을 통해 결성된 워너원은 1년6개월 동안 활동했고, 2018년 12월 31일 공식해체 했다.

한국학자들, 디즈니+ '설강화' 방송 재고 요청

국내의 한국학자 26명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의 방송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디즈니플러스에 보냈다. 11일 배경운 조지아공대 한국학 조교수 등 26명은 루크강 월드디즈니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사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가 극중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라"면서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나 실제 역사의 인물에서 많은 디테일을 차용하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민주화운동 펍백 의혹 등에 휩싸여 비판을 받고 있다.

임형주, 대통령선거 캠페인송 노 개런티로 불러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재능기부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캠페인 송을 불렀다. 소속사 디지털콘텐츠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차문위원회 임형주가 '노 개런티'로 대선 캠페인송 '주인공이야'를 가창했다"고 밝혔다. 노래를 작곡·작사한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는 캠페인송의 음원권리와 음악저작권을 국가에 기부했다. 노래는 국민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의미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차용했다.

미우새, 유튜브 콘텐츠 유사성 논란 사과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새끼'(미우새)가 유튜브 콘텐츠 유사성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미우새'는 9일 방송에서 김종민과 지상렬이 '동물의 왕은 사자 VS 호랑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해당 장면이 이말년 웹툰작가의 유튜브 '침필토론'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자 제작진은 11일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침필토론'의 2018년 11월 영상을 참조했다. 사전에 방송으로 고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말년 작가에게 연락해 과정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